

# 네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빛을 보다

### 전북대, 카트만두대학서 테크노페어 개최... 성과물 선봬 기술혁신센터 설립... 에너지 등 7개 세부 프로그램 추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네팔 카트만두대학(KU)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선보이는 테크노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20억 규모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네팔 카트만두대학 내에 네팔기술혁신센터(NITIC)를 설립, 에너지와 보건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7개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종료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대사관 코이카(KOICA), 네팔 정부, 국제기구, 대학, 연구소, 창업자, 학생, 산업체 등 2천여 명이 참가, 프로젝트 성과 전시와 지식공유 세미나, 창업기업 데모데이,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오 등 네팔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테크노페어에 함께해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북대 사업단(단장 황인호)은

이 사업을 통해 네팔기술혁신센터의 연구기반을 구축했고 운영 프로그램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기술개발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로의 파급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16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금 제공 및 기술, 마케팅,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매출 실현은 물론 수익 및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카트만두대학 부속병원(물리치료병원)에 네팔 최초 환자 의료데이터 베이스 플랫폼(스마트헬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스마트헬스 시스템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환자 진료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트만두대학이 영리사업 및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최근 네팔 카트만두대학(KU)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선보이는 테크노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공무현 코이카 네팔사무소장, 마니쉬포카렐 카트만두 공과대학 학장, 박태영 주네팔한국대사, 볼라티파 카트만두대학 부총장, 황인호 전북대학교 사업단장)

3개의 학교기업(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물, 수소가스 사업)을 설립 상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황인호 단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움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네팔기술혁신센터가

네팔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술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한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확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글로벌 역량 갖춘 전문직업인 발돋움”

### 전주비전대,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8일 비전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병훈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과 지도교수, 산학협력단장, 학사지원부장, 글로벌라이프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참여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의지를 다지는 선서와 함께 학생들을 격려했다.

해의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학과는 간호학부,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지적토목학과, 응급구조학과로, 참여 학생들은 1인당 1,000만~1,200만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한 학기 동안의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전주비전대는 12명의 인원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학생은 올해 2학기 동안 미국(8명), 영국(3명), 호주(1명) 등의 대학과 산업체에서 16주 동안 어학연수와 현장학습을 실시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우병훈 총장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이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가별 법, 규정, 안전관리 지침 등을 잘 지켜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오늘부터 을지연습’

### 도교육청, 24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24일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에도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연습으로, 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공무원이 참여한다.

21일 오전 8시 발령하는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 등 전시상황에 대비한 국가중립적 연습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비상소집에 응소한 후, 최초 상황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전 직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 을지연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주력 및 전투식량을 비상식량으로 지급해 전쟁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학교가 지난 18일 교내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연 가운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사진 왼쪽부터),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 이장호 총장, 최범용 전 농어촌공사 농촌지원개발원장, 정영민 onse대학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립군산대, 2022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 학사 등 총 297명 학위 수여... 문승우 전북도의회 등 명예박사학위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교내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후기 학위수여자는 총 297명으로, 국립군산대는 전기학위수여자를 포함 이번 학년도에 총 1,700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올해 졸업식은 통합 73회 졸업식으로, 전신인 군산사범학교로부터 지금까지 8만여명에 이르는 인제가 국립군산대학교를 통해 배출되었다.

올해 후기학위수여식에서는 명예박사학위와 명예등문패 수여식이 진행돼 이채를 띠었고, 특히 75세 만학도인 김경희 씨가 석사학위를 받아 눈길

을 끌었다. 김경희 씨는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일반대학원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날 (주)이강건설 강태정 대표와 1명에게 명예등문패가 수여됐으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 최범용 전 농어촌공사 농촌지원개발원장에게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됐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에게는 방산육성과 K-방산 흐름을 주도하며, 지역 사회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학박사학위가 수여되었고, 문승우 전북도위원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발전 민생문제 해결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공로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최범용 전 농어촌공사 농촌지원개발원장은 전국에너지포럼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립군산대학교가 에너지산업 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장호 총장은 식사를 통해 “강의실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회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졸업 후에도 지도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님, 선배들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해서, 든든한 평생 지원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주대, 전라제주권 대학

### 일자리플러스센터협 세미나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7~18일 이틀 간 여수 신라스테이호텔에서 '2023년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 중인 14개 대학 담당자와 취업컨설턴트,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고용 및 정책 특강을 시작으로 대학별 사업 운영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장(전주대 송호선 실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권역 세미나를 통해 대학들의 청년고용 서비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해 청년들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IT금융학과,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전주대학교 IT금융학과는 최근 예술관 리사이클홀에서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 연구회' 4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 연구회는 지역 내 민간, 공공, 학계, 연구소가 참여해 지역 기업의 신성장 기반 육성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매월 정례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차의 세미나는 전주대학교 IT금융학과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 및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가 주최, 국민연금, 중앙·지자체, 공공기관, 도내 대학, 민간기업 관계자, 전주대학교 IT금융학과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는 'AI·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로 개인정

보보호 전문 기업인 이지씨씨 김동래 부사장이 발표했다.

개인정보 가명 처리에 대한 국내외 정책, 기술 동향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술개발 활동들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는 네이바클라우드 육민철 부장이 네이버의 한국형 초대규모 AI, HyperCLOVA에 대해 설명한 후 네이바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초대규모 AI의 기술 개발 현황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18일 전주에서 전북교육협력지구 사업 참여자와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 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해법 모색

### 도교육청, 사업 참여자 등 대상 간담회 열고 개선방안 논의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가 지역 교육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에서 전북교육협력지구 사업 참여자와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협력지구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해당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지자체가 예산을 함께 투입해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교육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책 읽는 교실, 학부모 배움두레, 교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청소년 영화프로젝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2024년 교육협력지구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교육협력지구는 일선 시·군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업”이라면서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걸맞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2차 회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8일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특수학교 관리자, 현장 특수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꾸렸다.

이후 지난 8월 1차 회의를 갖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일어나는 교

육활동 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교원 인사 지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열린 2차 회의 결과를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운영

### 도내 학생 30여명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8~19일 이틀 간 임실 청소년수련원에서 소아청소년 당뇨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당뇨가 있는 도내 학생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며 △당뇨 관련 이론 강의 △자극당 및 민성질환 관리법 △건강한 식단 관리 등에 대해 배웠다. 이와 더

불어 △관계 형성 △수련활동 △힐링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동일 질환을 가진 또래와의 소통으로 연대감과 안정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당뇨질환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당뇨질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